



# 그린비 김현경 | 주간

자기가 래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  
《무엇이 성공인가》중에서

《마주치다 눈뜨다》를 만들면서 정말 즐거웠던 일은 평소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거였다. 물론 지승호씨의 인터뷰를 책으로 만드는 데 꼭 인터뷰이들을 만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다른 인터뷰집과는 다른 레이아웃으로 이 책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은 사진작가를 섭외해서 인터뷰이들의 사진을 새로 찍는 데까지 나아갔다. 모두 바쁜 분들이라 시간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평소 지승호씨의 인터뷰를 신뢰하고 좋아하던 인터뷰이들은 모두 흔쾌히 짬을 내서 사진기 앞에 서주셨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편집자라는 본분(?)을 잊고 마치 10대 소녀가 아이돌 스타를 만나듯 흥분했던 기억이 난다. 벌써 꽤 오래전부터 책으로, 웹으로, 방송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흥분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고 했던 터라 마치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 같아 지금 생각하면 나 혼자 오버해서 '친한 척'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성실한 인터뷰어 지승호가 가감 없이 담아낸 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책 《마주치다 눈뜨다》의 인터뷰이들은 모두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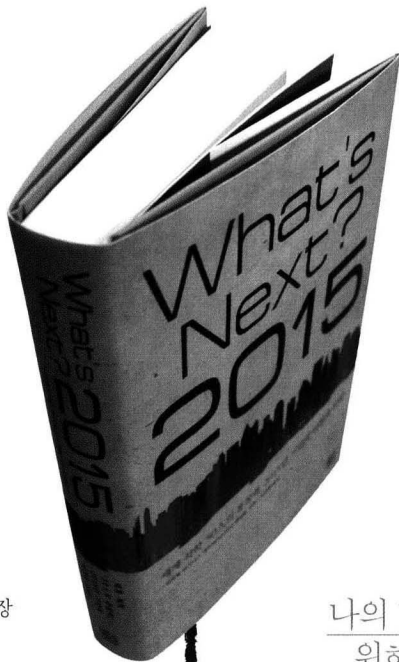
## 특별한 인터뷰, 그리고 조금 다른 '처세서' 이기도 한

들이다. 조금 더 돈이 되는 곳으로 조금 더 명예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며,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을 놓치고 사회의 부조리에 눈 감을 때, 그들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두드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부분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특히 그들은 높은 목소리로 강변하거나 호소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근거와 전망을 내세워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상교육이 왜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홍세화 선생의 근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은 막연히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교육의 평등한 기회'라는 말이 무의미해진 지 오래니, 무상교육이 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였다. 그러나 홍세화 선생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무상교육'이 한 대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실현되어야 할 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마주치다 눈뜨다》에는 이처럼 단순히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 논리적 근거와 함께 담겨져 있다.

나는 이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처세서라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법이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래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이 책에는 담겨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특히 어떻게 남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남들과 더불어 성공하는 삶을 말하는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

《마주치다 눈뜨다 : 인터뷰 한국사회 탐구》 인터뷰어 : 지승호 |  
인터뷰이 : 김동춘, 김어준, 손석희, 신강균·최원석, 정욱식, 진중권, 한홍구, 홍세화 |  
그린비 | 416쪽 | 값 12,000원



## 청년정신 최수진 | 편집부 과장

《What's Next? 2015》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미래서' 다. 그렇다고 신간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는 알뜰한 생각으로 이 책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은 아니다. 아마 원고 청탁서에 설명된 것처럼 '기대만큼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책'에 대해서 쓰기로 했다. 책의 선택이나 글의 시작이 더 수월했을 것이다.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지독하게 속을 끓여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책이 한 권 이상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이 책이 그러했다. 책이 출간되기까지 어느 한 과정도 정상적으로 넘어간 적이 없는 책이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고 무능한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기도 했다.

위에서 말한 '따끈따끈한 미래'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미래서를 낸다는 것은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빠른 세상 속에서, 퇴근길 포장마차의 우동국물이라면 모를까, '따끈따끈하다'는 시간개념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 과거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최근 잇달아 출간되고 있는 미래서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조망하고 있다는 것과 조만간 다가올 근간의 미래가 아닌 10년~20년 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편집자를 조금 안도하게 했다.

어느 편집자나 다 그렇겠지만 기획단계 이전부터 혹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책이 포지셔닝 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책은 그러한 작업들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유는 책의 목차만 봐도 이해가 갈 것이다. 경제와 재무, 문명과 문화, 과학기술, 생명공학, 지구와 환경, 종교적 가치와 신념 등에 걸친 세계 석학 50인의 이야기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계를 자신만

나의 미래를 위해 건배! 이 책의 미래를 위해 건배!  
세계의 미래를 위해 건배!

의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그들의 예리한 통찰력과 사고의 방대함은 읽는 사람을 압도한다.

편집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화두를 안고 고민했다는 것뿐이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미래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 나름의 미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현재가 곧 미래를 말해 준다는 것이다. 허접한 결론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린 나만의 정의가 시시각각 밀려드는 아쉬움과 회의감을 떨쳐버리고 책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부가 아니라 큰 흐름을 읽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은 독자들을 위한 책 소개 지면이 아니라 편집자를 위한 지면이기에 내용에 대한 더 이상의 해석은 삼가고 싶다.

면도칼로 찢고 들어가는 듯한 예리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편집자에게 남겨진 기억은 번역과 편집과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의 예리한 아픔들뿐이다. 편집자로서 처음 맡은 책이 출간되면 '책거리'라는 것을 하기도 한다. 새삼스럽게 그런 의식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자들에게 직접 책을 건네주고 돌아온 날, 혼자서 포도주를 한 잔 가득 따르고 '브라보'를 외쳤다.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유난히 눈이 아름답던 여자주인공 잉그리드 버그만을 향해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라고 외친 것처럼 말이다.

나의 미래를 위해 건배! 이 책의 미래를 위해 건배!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위해 건배! **◆◆**

《What's Next? 2015》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크(GBN)회원들 지음 | 이주형 옮김 | 616쪽 | 값 21,000원



# 예담

김은주 | 편집부 과장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로 “김은주 선생” 하고 불러주시는 문국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일은 매우 즐겁다. 팔순이라는 연세가 무색하게 매우 건강하고 젊은 문국진 선생은 특히 집필 계획을 이야기할 때 아이처럼 조금은 들뜨곤 한다. 《법의학자의 눈으로 본 그림 속 나체》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강함이란 무엇인지, ‘미추美醜’를 보는 관점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재미있는 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에 나도 살짝 흥분했던 것 같다. 흔히 나체화 하면 에로틱하고 섹시한 그림을 연상하겠지만 문국진 선생의 관점이라면 분명히 다르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인 문국진 선생은 지금도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며 수많은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많은 의학 전문서 저술, 학술원 정회원, 국제법의학회 한국 대표이자 미국과 영국 법의학회 회원이라는 화려한 이력에 시집을 비롯하여 여러 권의 예술서 저자라는 점은 다소 의외일 수 있겠다.

가윗일이라 할 만한 예술서 저술은, 그러나 선생이 철저하게 ‘법의학자’의 관점으로,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지 예술 애호가로 그치지 않고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작업을 의욕적으로 해내고 있기에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성<sup>理性</sup>의 영역인 과학, 그리고 감성<sup>感性</sup>의 영역인 예술이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교감하는 학문임을 입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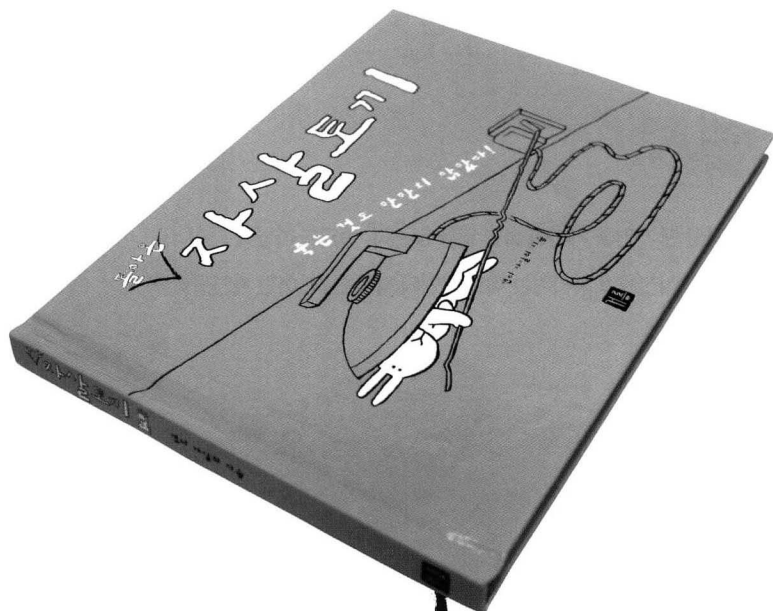
## 예술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과 자세

《명화와 의학의 만남》(예담, 2002),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의문과 진실을 밝히는 《반 고흐, 죽음의 비밀》(예담, 2003), 명화를 실마리로 하여 법의학술을 쉽게 접하도록 한 《명화로 보는 사건》(해바라기, 2004) 등에 이어 《법의학자의 눈으로 본 그림 속 나체》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벗은 몸’, 알몸이다. 모두가 옷으로 몸을 푹푹 싸매고 다니지만 그 꺼풀을 벗겼을 때 만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몸을 아름다움과 자연의 생명력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릎을 칠 만한 대목은 미국의 여성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대표적인 꽃그림들을 통해 여성의 처녀막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미처 알지 못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다. 법의학자가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을 것이기에 더욱 소중한 뿐만 아니라 성의식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수십 년 동안 해부대 위에 놓인 싸늘한 주검을 냉정한 시선으로 검시했을 법의학자이지만 여러 책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과 우리 몸을 바라보는 선생의 시각은 따스하고 건강함이 넘쳐흐른다는 점도 이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이다. 최근 선생은 《명화로 보는 인간의 고통》도 출간했다. 소설가 박상룡 선생이 그러셨던가. ‘아름다움’은 ‘앓음다움’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라 함께 덧붙인다. **✎**

《법의학자의 눈으로 본 그림 속 나체》 문국진 지음 | 288쪽 | 값 16,500원



## 거름 최소영 | 편집팀장

거름은 근래 10년 가까이 경제·경영서를 중심으로 출판활동을 한 곳이다. 386세대 중 거름이란 이름을 들으면 사회과학 서적과 연관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경영서를 내기 시작하다가 근자엔 경제·경영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랬던 거름인데, 작년부터 “거름이 이상해졌어”(?)란 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 바로 《자살토끼》란 카툰 집을 내면서부터다.

이 책은 앤디 라일이라는 영국 만화가가 죽지 못해 안달난 무표정한 토끼 이야기를 그려낸 책이다. 이 책을 출간하기 전 출판사 내부에서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내자, 내지 말자. 된다, 안 된다. 의견은 갈렸지만, 결국 편집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한국 독자들에게 이 책을 선보이게 됐다. 역시 독자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다양했다. 황당하고 허무하다는 평에서부터 유쾌하고 철학적인 카툰이라는 평까지.

우연히 가수이자 라디오 DJ로 활약하고 있는 김C의 서평을 받게 되면서 홍보에 더욱 뒷심을 얻었고,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토끼 그림이 돌아다니기에 이르렀다.

또 올초에는 《자살토끼》의 속편을 출간했다. 출간 당시 자살토끼는 이미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카툰이었지만, 우리는 제목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자살토끼2’로 할 것이냐, 원서의 제목처럼 ‘돌아온 자살토끼’로 할 것이냐. 1편의 연장선으로 편하게 생각할 것이냐, 새로운 맛을 살짝 더해 줄 것이냐의 고민이었다. 결국 1편

## 패러독스는 항상 독한 여운을 남긴다

의 ‘누구나 죽고 싶은 때가 있다’는 카피에 이어 ‘죽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는 카피를 내세워 《돌아온 자살토끼》로 결정했다.

이 책들은 결코 ‘자살’을 미화한 책이 아니다. 강판으로 얼굴을 밀고 있고, 물뿌리개에 물 대신 염산을 넣고 꽃인 척 꾸미고 있는 토끼는 엽기적이기까지 하지만, 오히려 토끼 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우리 삶을 짓누르는 우울함과 스트레스다. 얼마 전 훌륭한 영화배우로 평가받던 한 여배우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편집팀에서는 모두 그녀가 죽기 전 이 책을 보지 못한 걸 안타까워했다.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는 청소년 이야기도 들려오는 현실이다. 그들이 왜 죽으려고 하는지는 불명확할지도 모른다. 죽으려고 용을 쓰다가 우리 옆에 다시 돌아와 있는 토끼처럼,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피식 한번 코웃음 치고 삶이 더 유쾌하다는 걸 느껴보길 바란다. **최소영**

《돌아온 자살토끼》앤디 라일리 지음 | 92쪽 | 값6,500원